WEBVTT

00:00:11.367 --> 00:00:15.394
이번 시간에는 기사 쓰기에 대해서
한번 배워볼게요.

00:00:15.438 --> 00:00:19.198
기사 쓰기는 좀 전문적인
글쓰기이기는 해요.

00:00:19.223 --> 00:00:22.532
그런데 우리가 이 기사 쓰기를
언제 할 수 있어요?

00:00:22.557 --> 00:00:25.270
우리가 가족신문을 만든다든가
이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.

00:00:25.295 --> 00:00:32.152
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
신문은 굉장히 중요한,

00:00:32.177 --> 00:00:36.043
글쓰기에서도 그렇고 또 시사적인
측면의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고

00:00:36.068 --> 00:00:39.729
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
소잿거리거든요.

00:00:39.754 --> 00:00:45.161
그러니까 우리가 기사 쓰기를 통해서
신문이라는 것, 기사라는 것,

00:00:45.419 --> 00:00:49.760
신문이 어떻게 나오는지
이런 걸 파악하는 행위로 여기는 것도

00:00:49.785 --> 00:00:51.659
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.

00:00:51.684 --> 00:00:56.798
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팁을 통해서
나도 신문기자가 될 수 있다.

00:00:56.823 --> 00:01:00.323
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
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 볼게요.

00:01:01.265 --> 00:01:06.113
우리가 보통 신문 기사에는
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

00:01:06.767 --> 00:01:10.607
기사는 몇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.

00:01:11.281 --> 00:01:15.171
기사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
스트레이트 기사예요.

00:01:15.196 --> 00:01:16.758
스트레트, 이렇게.

00:01:16.783 --> 00:01:19.556
어떤 것에 곧장 간다.

00:01:19.581 --> 00:01:24.159
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전할 내용을
곧장 전해 주는 형식이다,

00:01:24.184 --> 00:01:25.558
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

00:01:25.583 --> 00:01:30.042
왜냐하면 기자들이 다양한
취재 현장을 누비면서

00:01:30.067 --> 00:01:31.656
뭔가 얘깃거리를 가져오잖아요.

00:01:31.681 --> 00:01:33.244
그 얘깃거리를 뭐 해요?

00:01:33.269 --> 00:01:34.337
곧장 전해 준다고요.

00:01:34.362 --> 00:01:36.569
바로 결론부터 얘기하는
그런 형식하고 똑같아요.

00:01:36.594 --> 00:01:38.829
핵심부터 얘기하는 형식하고
똑같아요.

00:01:38.854 --> 00:01:40.260
옛날에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

00:01:40.285 --> 00:01:42.839
이런 식이었던 줄거리
이야기가 아니라

00:01:42.864 --> 00:01:47.467
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
어떤 핵심을 가지고 이렇습니다

00:01:47.492 --> 00:01:51.612
이렇게 결과부터 내놓는 이런 형식을
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할 수 있어요.

00:01:52.103 --> 00:01:56.063
그런 반면에 또한
의견 기사도 있어요.

00:01:56.300 --> 00:01:59.533
흔히 오피니언 면에 나오는 건데요.

00:01:59.558 --> 00:02:04.533
사설이라든가
어떤 외부 칼럼이라든가

00:02:04.558 --> 00:02:07.430

이런 것들이 다
의견 기사일 수 있고요.

00:02:07.455 --> 00:02:11.021
또 따지자면 기획 특집 같은 게
있어요.

00:02:11.500 --> 00:02:12.589
예를 들면 뭐랄까요?

00:02:12.614 --> 00:02:16.418
이번 선거 관련해서 어떤
기획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.

00:02:16.443 --> 00:02:21.597
또 예를 들면 4대강 문제에 대해서
기획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.

00:02:21.622 --> 00:02:25.406
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
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것,

00:02:25.431 --> 00:02:30.042
이런 것도 기사의
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.

00:02:30.242 --> 00:02:32.946
그러면 사실 기사가 뭐냐?

00:02:32.971 --> 00:02:34.057
뉴스.

00:02:34.082 --> 00:02:36.068
우리가 흔히 뉴스라고 하는 게 뭐냐?

00:02:36.093 --> 00:02:40.620
사실 뉴스는 새로운 소식, 화젯거리

00:02:40.645 --> 00:02:44.379
또 시사성 있는 뉴스,
이렇게들 얘기해요.

00:02:45.313 --> 00:02:51.264
시사성이 있다는 것은 일단
정치 문제, 사회 문제같이

00:02:51.289 --> 00:02:55.012
사람들끼리 이슈가 되는
그런 이야깃거리 이런 걸 얘기해요.

00:02:55.037 --> 00:02:58.950
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

00:02:58.975 --> 00:03:04.109
뉴스 정의를 그런 거 다 빼고 그냥
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.

00:03:04.134 --> 00:03:07.631
뭐냐 하면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
우리가 귀가 솔깃하는

00:03:07.656 --> 00:03:09.109
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.

00:03:09.134 --> 00:03:12.634
그런 이야기가 뉴스다,
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.

00:03:13.301 --> 00:03:19.317
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
반응이 없다, 별로다.

00:03:19.342 --> 00:03:21.063
그러면 뉴스거리가 아닌 거예요.

00:03:21.088 --> 00:03:22.591
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어요.

00:03:22.616 --> 00:03:25.925
그런데 굉장히 그 사람이
관심을 가져요.

00:03:25.950 --> 00:03:28.444
또 어떤 때는 화들짝 놀라기도 해요.

00:03:28.469 --> 00:03:31.440
화들짝 놀란다?
그러면 뭐다?

00:03:31.465 --> 00:03:32.874
특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.

00:03:32.899 --> 00:03:35.828
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
새롭고 재미있는,

00:03:35.853 --> 00:03:39.131
꼭 재미는 아니고 새로운 소식이라고
볼 수 있는데

00:03:39.156 --> 00:03:44.047
그것은 상대가 그 이야기를 듣고
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

00:03:44.072 --> 00:03:47.222
그런 게 뉴스다,
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

00:03:47.800 --> 00:03:49.501
기사의 종류 아까 얘기했잖아요.

00:03:49.526 --> 00:03:55.042
그런데 뉴스의 특징은 뭐냐 하면
뭔가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.

00:03:55.103 --> 00:03:58.464
뭐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전하는 게
일단 기본적인 거거든요.

00:03:58.489 --> 00:04:00.396
이런 게 있습니다,
이렇게 전하는 거죠.

00:04:00.421 --> 00:04:03.601
예를 들면 우리가
수산시장에 갔다 그러면

00:04:03.626 --> 00:04:07.772
요새는 이런 생선이 나와 있습니다.

00:04:08.100 --> 00:04:11.381
또 어디 여행 가서는 이런 재미있는
볼거리가 있대요.

00:04:11.406 --> 00:04:13.296
이렇게 뭔가를 전해 주는 거죠.

00:04:13.321 --> 00:04:16.748
그래서 일선 기자들이 정말
24시간을 누비면서

00:04:16.773 --> 00:04:20.267
재미있는 뉴스라는 요리를
차리는 것이고

00:04:20.292 --> 00:04:22.440
우리는 그것을 먹는 건데요.

00:04:22.465 --> 00:04:24.813
그런데 이 뉴스는 그렇기 때문에

00:04:24.838 --> 00:04:28.338
생명은 신속하고
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.

00:04:28.363 --> 00:04:31.646
뉴스가 잘못돼 있다,
이건 있을 수 없고요.

00:04:31.671 --> 00:04:36.587
또 당연한 얘기인데 정확성보다
더 중요한 건 신속한 것이기도 해요.

00:04:36.612 --> 00:04:38.640
우리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겠지만

00:04:38.665 --> 00:04:43.266
신문사들끼리는 신속한 게
더 중요해요.

00:04:43.291 --> 00:04:46.589
요새는 또 신문사끼리도 경쟁이
치열하니까요.

00:04:46.614 --> 00:04:50.029
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
우리 두괄식 쓰기 배웠잖아요.

00:04:50.054 --> 00:04:54.593
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이야기를
가장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는 방식.

00:04:54.618 --> 00:04:56.016

이게 기사 쓰기다.

00:04:56.041 --> 00:04:58.752
그래서 사람들이 곧장 듣고
아, 그래?

00:04:58.777 --> 00:05:00.974
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방식.

00:05:00.999 --> 00:05:03.157
미괄식 글쓰기가 아니라는 거죠.

00:05:04.636 --> 00:05:11.435
요새는 종편이라고 해서
종합편성 방송이 많이 생겼잖아요.

00:05:11.460 --> 00:05:15.079
그러다 보니까 방송 간의
경쟁도 격화되고

00:05:15.104 --> 00:05:20.137
또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 간의
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졌어요.

00:05:20.162 --> 00:05:23.129
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
어떻게 돼요?

00:05:23.154 --> 00:05:26.929
정말 재미있는 뉴스를
남보다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

00:05:26.954 --> 00:05:30.600
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
하고 있어요.

00:05:30.709 --> 00:05:32.901
그래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
하는 거죠.

00:05:32.926 --> 00:05:39.808
그런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는
그런 뉴스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

00:05:39.833 --> 00:05:42.301
곧장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?

00:05:42.326 --> 00:05:43.685
채널을 돌려버려요.

00:05:43.842 --> 00:05:47.440
예를 들면 어떤 방송을 보고 있다가
뉴스가 나오는데 뉴스가 재미없다.

00:05:47.465 --> 00:05:49.176
다른 방송으로 돌려버리겠죠.

00:05:49.201 --> 00:05:53.759
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
재미있는 뉴스, 정확한 뉴스

00:05:53.784 --> 00:05:56.815
그걸 빨리 신속하게 전하는 것이
기사의 특징이다,

00:05:56.840 --> 00:05:58.164
이렇게 볼 수 있고요.

00:05:58.536 --> 00:06:02.539
또 기사의 특징에는
리드라는 게 있어요.

00:06:03.804 --> 00:06:06.175
신문 기자들은 리드를
모르지 않고요.

00:06:06.200 --> 00:06:10.582
또 우리가 학보사,
대학이나 이런 데.

00:06:10.607 --> 00:06:15.550
고등학교 때 방송반이나
교지 편집하거나 이런 친구들도

00:06:15.575 --> 00:06:17.509
다 리드라는 말을 아마 알 거예요.

00:06:17.534 --> 00:06:22.522
리드는 뭐냐 하면 내가 전해야 할
이야기, 뉴스를 종합해서

00:06:22.547 --> 00:06:25.520
맨 앞에다 이렇게
보여주는 문장이에요.

00:06:25.545 --> 00:06:29.045
그러니까 어떻게 보면
두괄식 쓰기에서 배웠던 첫 문장

00:06:29.070 --> 00:06:30.860
그게 리드라고 볼 수 있어요.

00:06:32.097 --> 00:06:35.597
예를 들면 요새 인기 있는 방송이
뭐가 있을까요?

00:06:36.178 --> 00:06:39.253
무한도전이 있다면 무한도전에서는

00:06:39.278 --> 00:06:43.869
연말에 달력을 만들잖아요,
사진 찍어서.

00:06:44.093 --> 00:06:47.593
그러면 예를 들면
무한도전에서 만든 달력이

00:06:48.031 --> 00:06:49.809
시청자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다.

00:06:49.834 --> 00:06:52.428
이런 것도 리드가 될 수 있고

00:06:52.453 --> 00:06:54.523
무한도전에서 드디어 달력이 나왔다.

00:06:54.548 --> 00:06:56.795
이런 것도 리드가 될 수도 있고요.

00:06:56.820 --> 00:07:01.765
또 예를 들면 어린이날에 놀이공원
이런 데 사람들 많이 붐비잖아요.

00:07:01.790 --> 00:07:06.865
그러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
전국의 놀이 시설, 놀이공원에서는

00:07:06.890 --> 00:07:09.367
놀러 온 아이들로 크게 붐볐다.

00:07:09.392 --> 00:07:10.897
이런 것도 뭐예요?

00:07:11.785 --> 00:07:12.842
기사의 리드라는 거죠.

00:07:12.867 --> 00:07:16.367
원래는 어디 놀이공원에 갔는데
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

00:07:16.392 --> 00:07:18.563
이렇게 쓰잖아요,
우리가 이야기할 때.

00:07:18.588 --> 00:07:20.389
그런데 그걸 종합해서

00:07:20.414 --> 00:07:24.456
가장 중요한 얘기를 문장으로
만들어 표현하는 게 리드다.

00:07:24.713 --> 00:07:27.321
쉽게 얘기하면 두괄식 쓰기의
첫 문장이다,

00:07:27.346 --> 00:07:29.345
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

00:07:29.737 --> 00:07:34.047
그런데 신문 기사에는
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

00:07:34.410 --> 00:07:35.813
방송도 마찬가지고요.

00:07:35.838 --> 00:07:38.053
일단 첫째는 화제성 기사.

00:07:38.078 --> 00:07:40.873
이게 기사의 첫걸음이에요.
가장 중요한 거예요.

00:07:41.049 --> 00:07:44.050

뭐가 일어났습니다,
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대요.

00:07:44.075 --> 00:07:45.443
이렇게 전하는 것이죠.

00:07:45.785 --> 00:07:48.501
그래서 예를 들면 ~해서
화제가 되고 있습니다,

00:07:48.526 --> 00:07:50.228
~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

00:07:50.253 --> 00:07:52.966
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바로
화제성 기사고요.

00:07:52.991 --> 00:07:54.702
또 사건 기사도 있죠.

00:07:54.727 --> 00:07:57.693
미담 이런 건 화제성 기사겠지만
사건.

00:07:57.718 --> 00:08:00.399
예를 들면 누가
누구 집을 털었다든가

00:08:00.715 --> 00:08:04.784
예를 들면 누가 싸웠다든가
이런 이야기들이요.

00:08:04.809 --> 00:08:06.215
또는 누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다.

00:08:06.240 --> 00:08:09.595
이런 얘기들이 다 사건 기사에
해당될 수 있고요.

00:08:09.620 --> 00:08:12.718
굳이 분류하자면 아까
화제 기사에서 들어갔던 일부는

00:08:12.743 --> 00:08:14.744
미담 기사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.

00:08:14.769 --> 00:08:17.921
누가 착한 일을 했다,
선행해서 기부를 했다.

00:08:17.946 --> 00:08:21.446
이런 이야기도 미담 기사에
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

00:08:21.868 --> 00:08:26.438
화제성 기사는 우리가 정말 봤을 때
신기한 것들은 다 화제성 기사예요.

00:08:26.670 --> 00:08:30.853
제가 얼마 전에
인터넷 신문을 봤는데요.

00:08:31.483 --> 00:08:37.720
미국의 어떤 가정집에
뱀이 나타났는데 머리가 2개였어요.

00:08:38.722 --> 00:08:42.790
조그마한 뱀이긴 했는데
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?

00:08:43.026 --> 00:08:44.714
쌍두사라고 할까요?

00:08:44.739 --> 00:08:48.147
이런 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
막 그걸 보도해서

00:08:48.172 --> 00:08:49.424
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.

00:08:49.627 --> 00:08:53.980
이런 뱀 이야기, 당연히 화젯거리에
해당될 것 같고요.

00:08:54.719 --> 00:08:58.655
그런데 화제성 기사의
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

00:08:58.680 --> 00:09:02.616
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
정보를 공유하는 거고요.

00:09:02.641 --> 00:09:09.005
또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이지만
이런 일이 일어났어요라고

00:09:09.030 --> 00:09:09.878
이렇게 전해 주는 기능.

00:09:09.903 --> 00:09:13.251
그러니까 어떤 걸 전하는 기능과
또 그것을 공유하는 기능

00:09:13.276 --> 00:09:17.616
이런 것들이 화제성 기사의
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.

00:09:17.720 --> 00:09:21.284
뉴스는 그 화제의 기사를
가장 빨리 효율적으로

00:09:21.309 --> 00:09:24.300
전하는 것이다라고
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

00:09:24.916 --> 00:09:27.485
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
한 가지 아셔야 할 게

00:09:27.510 --> 00:09:33.715
뉴스가 거창하고 소위 쇼킹한 것만
또 특별한 것만 기사냐?

00:09:33.740 --> 00:09:35.441
사실 그렇지는 않아요.

00:09:35.979 --> 00:09:40.161
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뉴스의
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면

00:09:40.186 --> 00:09:42.313
작은 일도 기사가 될 수 있어요.

00:09:42.338 --> 00:09:44.915
이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

00:09:44.940 --> 00:09:47.162
우리가 바다에 가면
고래나 상어 같은

00:09:47.187 --> 00:09:52.490
큰 생물만, 동물만 고기라고
생각할 수 있잖아요.

00:09:52.515 --> 00:09:55.496
하지만 여러분, 민물에 오면

00:09:55.521 --> 00:09:58.571
올챙이가 때로는
기삿거리가 될 수도 있죠.

00:09:59.027 --> 00:10:05.203
예를 들면 한강에서 1급수에만
서식하는 버들치가 발견됐다.

00:10:05.228 --> 00:10:06.555
이런 것도 당연히 기사죠.

00:10:06.580 --> 00:10:09.305
왜냐하면 그 물고기가
발견됨으로 인해서

00:10:09.330 --> 00:10:11.540
한강 수질이 얼마나
좋아졌는가를 보여준다.

00:10:11.565 --> 00:10:15.065
이런 형태일 때는 버들치가
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.

00:10:15.090 --> 00:10:17.740
그러니까 이럴 때도
조그마한 물고기지만

00:10:17.765 --> 00:10:19.238
기삿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

00:10:19.263 --> 00:10:21.133
그런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해요.

00:10:22.018 --> 00:10:26.523
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서
일어난 화젯거리도

00:10:26.548 --> 00:10:28.886
다 사실은 기삿거리가 될 수 있어요.

00:10:28.911 --> 00:10:32.011
그래서 기사를 쓰려면
내 주변에서

00:10:32.036 --> 00:10:35.007
어떤 화젯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
민감해야 하고

00:10:35.568 --> 00:10:40.582
그런 화젯거리를 찾을 수 있는
눈이 제일 중요해요.

00:10:41.471 --> 00:10:47.527
예를 들면 이건 재미있는 건데
제가 놀란 거거든요.

00:10:47.552 --> 00:10:51.541
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에
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.

00:10:51.566 --> 00:10:54.248
그런데 거기에서
놀랄 만한 걸 발견했어요.

00:10:54.273 --> 00:10:59.238
뭐냐 하면 테네시 주에 있는
어떤 폭포였는데요.

00:10:59.465 --> 00:11:02.175
이 폭포가 지하에 있어요.

00:11:02.240 --> 00:11:03.653
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갔어요.

00:11:03.678 --> 00:11:08.819
그런데 지하 동굴 엘리베이터를 타고
굉장히 오랫동안 내려가요.

00:11:08.844 --> 00:11:12.053
내려가서 또 한
몇 킬로미터를 걸어갔어요.

00:11:12.078 --> 00:11:16.145
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폭포가
나타나는 거예요.

00:11:16.170 --> 00:11:18.497
그래서 100m 정도 되나요?

00:11:18.522 --> 00:11:21.500
거기에서 수직으로 그냥 물이
막 콸콸콸 쏟아지는

00:11:21.525 --> 00:11:24.129
이런 폭포가 있었어요.

00:11:24.154 --> 00:11:28.730

이런 폭포 당연히 이것은
화젯거리, 기삿거리가 되겠죠.

00:11:28.755 --> 00:11:33.323
그러니까 내가 여행 갔다 와서
본 거, 이런 거 가지고.

00:11:33.348 --> 00:11:35.587
예를 들면 미국에는 지하에

00:11:35.612 --> 00:11:39.112
100m 높이에서 떨어지는
폭포가 있다.

00:11:39.137 --> 00:11:41.986
이런 것도 화젯거리가 될 수 있고요.

00:11:42.011 --> 00:11:46.051
그다음에 가치 부여에 따라
달라지는 기사도 있어요.

00:11:46.076 --> 00:11:48.134
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
가 보니까요.

00:11:48.159 --> 00:11:50.317
거기는 엄청나게 유명한
관광지잖아요.

00:11:50.342 --> 00:11:54.781
그런데 그런 관광지인데
주위가 너무 깨끗해요.

00:11:54.806 --> 00:11:58.945
소란스럽지가 않고 유흥가도 없고

00:11:58.970 --> 00:12:01.619
그냥 너무 검소한 건물들만
이루어져 있어요.

00:12:01.644 --> 00:12:04.883
이런 것도 뉴스거리가
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.

00:12:04.908 --> 00:12:07.743
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없는
이야기들이니까.

00:12:09.225 --> 00:12:11.837
이 신문에 대해서 뉴스를
잘 아는 방법은

00:12:11.862 --> 00:12:14.516
직접 한번 여러분이
신문을 제작해 보는 건데요.

00:12:14.541 --> 00:12:17.118
가족신문을 한번 제작해 보면
좋을 것 같아요.

00:12:17.871 --> 00:12:20.052

우리가 생활 속에서
일어나는 것도 새롭고

00:12:20.077 --> 00:12:22.919
누구한테 얘기하면
그래? 할 수 있는 것들은

00:12:22.944 --> 00:12:25.260
다 기삿거리예요.

00:12:25.481 --> 00:12:29.742
예를 들면 내가 백일장 대회에서
1등을 했다.

00:12:29.767 --> 00:12:31.001
당연히 기사죠.

00:12:31.026 --> 00:12:32.487
그런데 이런 것도 기사예요.

00:12:32.512 --> 00:12:35.523
우리 아빠가 20년간 담배를 피웠는데
드디어 끊었다.

00:12:35.548 --> 00:12:38.142
담배를 피웠는데 끊었다.

00:12:38.167 --> 00:12:40.047
이런 것도 당연히 기삿거리고요.

00:12:40.072 --> 00:12:42.237
우리 집안에서는
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?

00:12:42.262 --> 00:12:44.441
또 이런 것도 있어요.

00:12:44.466 --> 00:12:47.966
1등 한 것만이 아니라
공부를 못하는 내 동생이

00:12:48.189 --> 00:12:51.689
이번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
드디어 처음으로 50점을 넘었다.

00:12:51.714 --> 00:12:54.114
이런 것도 당연히
기삿거리이지 않겠어요?

00:12:54.139 --> 00:12:57.281
그런데 기삿거리는 상대적인 측면도
없는 건 아니죠.

00:12:57.306 --> 00:13:03.028
그런데 누구나 생각할 때
우리 가족에게서 특이한

00:13:03.053 --> 00:13:05.116
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

00:13:05.141 --> 00:13:08.641

모두 가족신문의
기사가 될 수 있고요.

00:13:08.666 --> 00:13:11.984
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
누구나 내 삶에 있어서는

00:13:12.009 --> 00:13:13.373
특종 기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

00:13:13.398 --> 00:13:16.111
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
소개할 수 있다면요.

00:13:16.136 --> 00:13:19.077
그래서 기삿거리를 찾으려면
화젯거리에 민감해야 해요.

00:13:19.102 --> 00:13:22.450
그래서 기사를 보는 눈,
이런 걸 길러야 할 것 같고요.

00:13:23.863 --> 00:13:29.513
가족신문을 만드는
방법 중에 또 하나는

00:13:30.361 --> 00:13:32.549
사진 기사를 쓰는 것도
좋은 방법이에요.

00:13:32.574 --> 00:13:36.736
우리가 에세이 쓰기에서
사진 가지고 기사 쓰기

00:13:36.761 --> 00:13:39.156
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할 건데

00:13:39.816 --> 00:13:41.200
사진 기사 쓰기.

00:13:41.390 --> 00:13:46.354
우리 가족이 놀러 갔던 이야기
이런 걸 사진으로 찍어서

00:13:46.379 --> 00:13:50.577
또 운동회 날 일어났던 일을 찍어서
사진 한 장을 놓고

00:13:50.760 --> 00:13:55.612
에세이 쓰기를 한다면
거기에다 내 느낌 같은 걸 쓰지만

00:13:55.637 --> 00:13:58.115
사진 기사는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라고
보여주는 거잖아요.

00:13:58.140 --> 00:14:02.403
그러니까 몇 년, 몇 월 며칠
우리 가족이 어디를 다녀왔다,

00:14:02.428 --> 00:14:03.643

이런 식으로.

00:14:04.151 --> 00:14:06.535
사실 위주로 쓰는 게 기사예요.

00:14:06.560 --> 00:14:09.603
그래서 사실 위주로 이렇게
사진 기사를 쓰는 것도

00:14:09.628 --> 00:14:11.875
훌륭한 기사 쓰기 방법일 수 있고요.

00:14:12.138 --> 00:14:17.341
여행 사진 쭉 나열하고 그 밑에다가
사진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되면

00:14:17.366 --> 00:14:18.204
뭐가 돼요?

00:14:18.229 --> 00:14:21.227
이게 하나의 큰 화보가 될 수 있어요.

00:14:21.252 --> 00:14:24.752
우리 가끔 가다가 국가에서
중요한 일이 있을 때

00:14:24.777 --> 00:14:27.797
화보 형식으로 뭔가를
이렇게 하잖아요.

00:14:27.822 --> 00:14:32.519
그런 형식으로 화보 형태의
가족신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.

00:14:32.683 --> 00:14:36.768
그런데 마지막으로 기사 쓰기 할 때
유의할 점이 있어요.

00:14:36.793 --> 00:14:39.231
우리가 잘 모르는 기사 쓰기의 팁.

00:14:39.429 --> 00:14:44.131
기사 쓰기에서는
존댓말을 잘 쓰지 않아요.

00:14:44.156 --> 00:14:48.826
예를 들면 선생님이 굉장히
존경스럽고 높은 분이잖아요.

00:14:48.851 --> 00:14:52.080
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,
이렇게 쓸 것 같잖아요.

00:14:52.105 --> 00:14:58.043
그런데 그냥 김누구누구 선생이
뭐라고 말했다.

00:14:58.068 --> 00:15:00.979
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,
대부분이에요.

00:15:01.004 --> 00:15:04.441
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보다
더 나이 많은 사람이

00:15:04.466 --> 00:15:06.019
그걸 읽어볼 수도 있잖아요.

00:15:06.064 --> 00:15:09.776
우리끼리 보는 신문이라면
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쓰는 게 좋아요.

00:15:09.801 --> 00:15:14.084
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
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하면

00:15:14.109 --> 00:15:15.473
그걸 읽는 사람 중에 선생님보다

00:15:15.498 --> 00:15:17.375
나이가 많은 분이
있을 수도 있잖아요.

00:15:17.400 --> 00:15:19.685
그래서 존댓말을 쓰지 않는
경우가 많아요.

00:15:19.710 --> 00:15:22.552
우리가 일반 신문에서는
존댓말이 별로 없어요.

00:15:22.577 --> 00:15:27.792
그다음에 역시 문장을 가능한
단문 형식으로 짧게 써야 해요.

00:15:27.817 --> 00:15:32.792
신문 기사는 소설처럼 의문을 주거나
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.

00:15:32.817 --> 00:15:35.590
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데
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

00:15:35.615 --> 00:15:37.388
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.

00:15:37.413 --> 00:15:40.064
그래서 문장을 가능한 한
짧게 쓰고요.

00:15:40.136 --> 00:15:43.531
또 신문을 읽으면서
이거 왜 이렇게 문장이 어렵지?

00:15:43.556 --> 00:15:44.707
이런 거 없어요.

00:15:44.732 --> 00:15:46.470
신문은 술술 이렇게
읽을 수 있어야 해요.

00:15:46.495 --> 00:15:49.734

그래서 어려운 말도 쓰면 안 되고요.

00:15:49.759 --> 00:15:52.916
어려운 말을 쓰게 되면 반드시
이렇게 주석을 달아줘야 해요,

00:15:52.941 --> 00:15:53.658
용어 해설.

00:15:53.683 --> 00:15:55.843
요새는 신문들 많이
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

00:15:55.868 --> 00:15:58.000
용어 해설을 좀 해 주면 되고요.

00:15:58.025 --> 00:16:03.209
아까 한 얘기로 신문은
어떤 이야기를 쉽게 전하는.

00:16:03.234 --> 00:16:07.237
예를 들면 신문은 초등학교 5학년을
기준으로 한다, 이런 말이 있어요.

00:16:07.262 --> 00:16:11.939
그렇게 읽고 바로
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게 뭐지?

00:16:11.964 --> 00:16:13.593
신문 기사가 이게 뭔 내용이지?

00:16:13.618 --> 00:16:18.658
이렇게 의문을 주면서 하게 되면
굉장히 신문으로서 기능이 떨어져요.

00:16:18.683 --> 00:16:21.495
그래서 기사 쓰기 할 때도
이런 점을 좀 유의하고요.

00:16:21.520 --> 00:16:23.072
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

00:16:23.097 --> 00:16:26.416
여러분 주변에서 재미있는
이야깃거리를 꺼내는 것이다.

00:16:26.441 --> 00:16:30.560
그래서 그걸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
반 전체가 다 놀란다.

00:16:30.585 --> 00:16:34.085
그러면 여러분이 바로
특종 기사나 다름이 없어요.

00:16:34.119 --> 00:16:39.793
그래서 간단하게 기사 쓰기의 특징,
그다음에 내용, 유의할 점

00:16:39.818 --> 00:16:41.757
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.

00:16:41.782 --> 00:16:44.615
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